

전방·일신방직 부지 본격개발…광주시 “공공성 대원칙”

공장부지 내 근대유산 보존…화력발전소 등 해방 이전 시설물 원위치

“제안서 들어오면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검토…연내 설계 공모”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전략적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의 개발프로젝트 추진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본격화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장부지 내 근대유산 보존 등 공공성과 사업성·상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연내 설계 공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29만3290㎡에 달한다. 이 공장부지는 부동산 개발 기업인 주식회사 휴먼스홀딩스제1차PFV가 매입했다. 현재는 매입계약만 이뤄진 상태다. 사업자 측은 올 가을 이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내 광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공성과 사업성, 즉 보존과 개발을 융합한 전략적 상업지로 개발한다는 대원칙 아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앞서 광주시는 현 공장 부지 내 호텔과 업무

시설·쇼핑복합시설·주상복합·지식산업센터·공공시설 등을 개발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 ▲시민 삶의 질 향상·도시경쟁력 제고 ▲품격 높고 혁신적인 도시경관·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은 원형·원위치 보존이 필수인 건축물을 제외한 보존 대상에 대해서도 역사와 장소성을 담보하는 보존 계획을 수립할 것과 방직공장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생산설비와 산업결과물을 제공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등 해방 이전 시설물은 원위치에 원형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방·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종연방직(가네

보 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에서 관리하다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현)으로 민영화된 데 이어 다시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 설립됐다.

두 공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사업자 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랜드마크로서 디자인 특화 명품단지를 조성,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적 도시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의 협상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자 측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쇼핑복합 시설과 관련, 최근 현대백화점그룹과 약정을



맺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이날 오전 공장 부지 내 미래지향적 도심형 문화복합물 ‘더현대 광주’ 출점을 위한 협의를 사업자 측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부지 내 호텔 건립 계획도 조만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호텔 건립에 관심을 갖

는 업체들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공·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연내 설계 공모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중동 언론 전남 관광 매력 알리기 나선다

전남도, 한국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과 걸프협력회의 주요 언론사 초청 팸투어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중동 현지 언론사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6일까지 3일간 전남의 관광자원과 문화체험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5월 개최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관광 로드쇼’ 해외 관광설명회 성과로 이뤄졌다. 중동의 주요 언론사가 전남을 방문해 관광·문화체험과 즐길거리를 취재해 중동지역에 소개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두바이 정부 소속 아랍 에미리트(UAE) 최대 미디어 기관인 알바얀(Al Bayan)과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제다에서 최대 구독자 보유 미디어인 오카즈(Okaz), 카타르 제2뉴스 채널인 도하뉴스(Doha News) 등 4개 언론사 관

계자와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팔로어)를 보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들 언론사는 채널별 2회 이상 전남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영향력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미식 등 전남에 특화된 테마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동 관광시장에서 선호하는 자연자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음으로 선정된 파평섬,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소개한다. 한류 열풍을 잇는 케이(K)-드라마의 촬영지인 목포 근대역사관, 순천 낙안읍성, 구례 쌍산재와 천은사 등도 선보인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숨기지 않았다”

“3~5년 지연, 알고도 숨겼다” 민선8기 인수위 주장 반박

광주시가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3~5년 지연되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측 주장에 대해 이용섭 전 시장이 “숨기지도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 한 반기에 종합대책과 함께 개통시기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개통시기 지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인수위 보도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특단의 방안들과 혁신적 조치들을 강구하면 개통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크게 늦어진다고 발표하면 혼란과 불안감만 조성하게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초 2호선 1단계(시청~광주역, 17km)는 2023년, 2단계(광주역~첨단~시청, 20km)는 2024년, 3단계(백운광장~전월~효천역, 4.8km)는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인수위 측은 내부 검토 끝에 “1단계는 2026년, 2

단계는 2029년, 3단계는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시가 개통 지연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은 “2021년 4월 내부 점검회의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완전 개통이 2026년까지 늦춰질 수 있는 만큼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정거장 건축과 기계·신호공사를 토목공사와 병행하고, 시운전 기간도 대폭 줄여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못다한 얘기를 털어냈다.

이어 “나는 지금도 토목 후속공정의 중첩 시행과 시운전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등 혁신적 노력과 기민하고 철저한 대처를 해가면 2024년 말이나 2025년 상반기에 1단계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후에 가능한 개통시기를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했다”며 “민선 8기에서 시간을 갖고 안전성, 기술성, 총사업비, 시민 불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개통시기를 결정해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광주시, 무더위 쉼터 확대

재난도우미 2080명 운영

광주시에 폭염 특별관리에 나섰다. 지난 2일 폭염경보가 처음 발효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 여름이 평년 기온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농·축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치구가 함께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우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 쉼터를 1548곳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에 냉방비 3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기간 중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또 열선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극락교·송정역 구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한 4km의 도로 살수장치와 다중 밀집지역 주변 도로 273.45km에 살수차를 투입해 아스팔트 열기로 뜨거워진 도로온도를 낮추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근처에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고소득층

저소득층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